

가락오광대의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 지향

-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을 중심으로 -

정 규 식*

차 례

- | | |
|-------------------------|--------------------------------|
| 1. 서론 | 3.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의 특징 |
| 2. 가락오광대의 전승과 극적 구성의 특징 | 1) 지역적 정체성의 적극적 반영 |
| | 2) 사회성과 근대성의 가치 지향 |
| | 4. 결론 |

국문초록

가락오광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에서 유래·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연희극이다. 가락오광대는 대략 1890년부터 연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현재의 가락오광대는 120년 넘게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부산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락오광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락오광대의 극적 특징을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거기에 내재한 지역적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정체성과 가치 지향성을 밝혀 가락오광대의 지역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논의의 결과, 죽림나루가 있던 죽림마을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가락오광대는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에서 전승 지역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이 넓은 곡창 지대를 끼고 있다는 점, 국가에 바치는 세곡을 저장했던 세곡창이 있던 곳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 지역 사람들이 세곡 운반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통해 이곳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며 이러한 인문지리적 환경이 노름꾼 과장의 형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할미·영감 과장의 경우, 할미가 아닌 영감이 죽는 것은 이곳의 당산신과 허황후의 존재와 연관되며,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은 조만강과 오봉산이라는 인근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과장 역시 지역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은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 지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노름꾼 과장에서 노름을 하는 행위자가 비장애인인으로 설정되었다는 점, 노름에 관대하고 절도에 엄중하다는 점 등은 개인보다는 행위를 중시하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할미·영감 과장에서는 영감이 죽는다는 것,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할미의 책임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근대성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락오광대는 지역적 정체성을 충실히 발현하면서도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의 오광대로서 지역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 가면극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가락오광대, 노름꾼 과장, 할미·영감 과장, 지역적 정체성, 가치 지향, 사회성, 근대성

1. 서론

가락오광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에서 유래·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연희극이다. 가락오광대는 송석하 선생이 ‘金海의五廣大는 約四十年前에, 東萊것을參考하여始作하였고’¹⁾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략 1890년부터 연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현재의 가락오광대는 약 120년 넘게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에서 전승되어²⁾ 온 부산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영남지역의 가면극은 낙동강을 경계로 서쪽에는 오광대가 동쪽에는 야류가 분포³⁾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동쪽에 위치한 부산지역에는 야류 계통의 가면극이 주로 분포해 왔는데 1989년 김해군 가락면 등이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은 야류(동래야류와 수영야류)와 오광대(가락오광대)가 동시에 분포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18호)와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43호)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수없이 진행되었다. 두 가면극이 이미 오래 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연과 전승이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가락오광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⁴⁾ 따라서 본고는 가락오광대의

1)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第 1號, 朝鮮民俗學會, 1933, 21쪽.

2)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면극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전승이 단절되었었다. 이후 문화재보호정책에 따라 1970~80년대부터 전통 문화의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지역의 무형문화재가 복원·재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락오광대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그쳤다고 할 수 있다.

3)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집문당, 1986, 31-35쪽.

4) 가락오광대에 관한 선행 연구는 2004년 김해민속보존회에서 펴낸 『김해가락오광대』(박이정, 2004)에 게재되어 있는 「김해 가락오광대의 어제와 오늘」(김재걸), 「가락신화와 김해 가락오광대」(김열규), 「김해 가락오광대의 유래담과 대본 및 탈」(박진태), 「죽림마을의 민속문화와 김해 가락오광대」(황경숙) 등이 거의 유일

극적 특징을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거기에 내재된 지역적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락오광대의 두 과장의 가치 지향이 사회성과 근대성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가락오광대의 전승과 극적 구성의 특징

본고에서 말하는 ‘가락오광대’는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승되고 있는 전통 가면극을 지칭한다. 앞서 밝혔듯이, 가락오광대는 19세기 말에 유래하여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9년에 김해오광대(김해오광대보존회)와 분화되어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가락오광대는 김해오광대와 동일한 뿌리를 지녔지만 약 20년간의 독자적 전승으로 부분적 차이를 지닌 오광대라 할 수 있다.⁵⁾

필자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가락오광대의

한 연구 자료들이다. 이 선행 연구들은 가락오광대 연구에 소중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과들은 1999년 김해오광대가 가락오광대에서 분화된 이후, 김해오광대를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들이므로 이후 독자적으로 전승되어 온 가락오광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5) 1999년 분화된 김해오광대는 2015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다. 가락오광대와 김해오광대는 극의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름꾼과장에서 김해오광대(김해오광대의 연희본은 현재 김해오광대 보존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노름꾼 1이 패를 나눠주지만 김해오광대는 노름꾼 2가 나눠준다. 그리고 할미·영감 과장에서 영감의 상여가 나갈 때, 가락오광대는 상여소리를 아주 길게 연희하지만 김해오광대는 짧게 연희한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두 오광대의 대본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두 보존회가 분화된 이후, 각각의 전승 주체들이 서로 다르게 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고는 2016년에 필자가 직접 현지 조사한 가락오광대 연희본을 대상으로 논의함을 밝힌다.

전승 현장, 전승 주체, 연희 장면 등을 직접 현지 조사하였다.⁶⁾ 가락오광대는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구성된 가락오광대 보존회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데 이 보존회는 가락오광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6) 필자가 현지 조사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수	시기	장소	조사 내용	제보자	기타
1차	2016.05.11	낙동강오리본집	가락오광대 유래 관련 면담조사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 (회장 문용달, 사무국장 서강식, 재무 송종열, 총무 기정명 등)	구술면담 조사
2차	2016.10.09	가락중학교	양반 과장	가락오광대 보존회	가락중학교 동문회 축하공연
3차	2016.10.19	옛 죽림나루터 및 옛 장터 등 오광대 연희 인근 지역	유래 및 전승환경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 (회장 문용달, 명예회장 안병업, 사무국장 서강식 등)	죽림마을 주변 환경
4차	2016.11.29	가락오광대 보존회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양반 과장	가락오광대 보존회	연습장면
5차	2016.12.15	가락오광대 보존회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영노 과장, 할미·영감 과장, 사자무 과장	가락오광대 보존회	발표회
6차	2016.12.20	가락오광대 보존회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중 과장, 노름꾼 과장, 양반 과장	가락오광대 보존회	발표회
7차	2016.12.29	가락오광대 보존회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가락오광대의 전승, 극의 내용 관련 면담조사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 (회장 문용달, 명예회장 안병업, 운영위원 박덕규, 사무국장 서강식, 재무 송종열)	구술면담 조사
8차	2017.11.24	가락주민센터	할미·영감 과장	가락오광대 보존회	가락오광대 학술대회 시연회

필자는 위 표의 7차 조사(2016.12.29.)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락오광대 연구 용역 보고서』(부산시 강서구청·한국문화연구원, 2016)를 작성하였다.

자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강서구 지역의 다양한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 가락오광대를 공연하고 있다.

가락오광대 보존회는 강서구 가락동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92)의 2층에 있다. 이곳은 강서구청이 가락오광대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제공한 공간으로 연회장, 소품실, 탈의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민 위주로 구성된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이곳에서 모여 가락오광대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가락오광대 보존회(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2층)〉 〈소품실〉

지역민의 삶과 생활, 정서와 의식을 담은 지역 문화가 지역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면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조사 및 연구 방법의 문제와도 연관되지만 문화적 교섭 현상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 등과도 연관된다. 특정 지역의 문화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어떠한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특정 지역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구비문학의 구연 현장에서 확인되는 <모심기 소리> 같은 경우는 노래의 가사에서 그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상업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화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가락오광대의 경우 인근 지역의 오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극적 구성을 지니고 있어 가락오광대가 유래되고 전승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락오광대의 지역적 정체성은 극의 구성과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가락오광대를 전승해온 지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가면극의 과장 구성은 유형별, 지역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 과장, 파계승에 대한 풍자 과장, 양반에 대한 풍자 과장, 부부와 첩 사이의 갈등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⁷⁾ 그리고 이 가운데도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주가 된다. 그래서 가면극은 사회 풍자의 희극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으로 빚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⁸⁾ 이 과정에 민중과 백성의 상징인 말뚝이나 취발이가 등장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면극은 양반과 백성,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결에서 백성(피지배층)이 양반(지배층)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면극에는 양반과 백성의 직접적인 재담 대결이 펼쳐지는 양반 과장 및 양반 사회의 처첩 갈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할미·영감 과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조사되었거나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들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부산·경남지역 가면극의 극적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합천 밤마리오광대	오방신장무과장-중과장-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사자무과장
--	--------------	-------------------------------------

7)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452쪽.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260쪽.

8) 강등학 외, 위의 책, 452쪽.

오 광 대	가산오광대	오방신장무과장-영노과장-문둥이과장-양반과장-중과장-할미·영감과장
	진주오광대	오방신장무마당-문둥이마당-양반마당-중마당-할미·영감마당
	마산오광대	오방신장무과장-상좌노장중과장-문둥이과장-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사자무과장
	통영오광대	문둥이탈과장-풍자탈과장-영노탈과장-농장탈과장-포수탈과장
	고성오광대	문둥복춤과장-오광대놀이과장-비비과장-승무과장-메밀주과장
	거제 영등오광대	오방신장마당-문둥이마당-포수마당-말뚝이마당-영등할미마당
	가락오광대	중과장-노름꾼과장-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사자무과장
야 류	수영야류	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사자무과장
	동래야류	문둥이과장-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

〈부산·경남지역 가면극의 극적 구성〉

이렇게 본다면 야류든 오광대든 부산·경남지역의 가면극은 양반과장 중심의 가면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락오광대는 그렇지 않다. 가락오광대의 양반과장은 다른 지역의 가면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말뚝이와 양반의 재담 대결이 비교적 짧아 연회되는 시간도 길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가락오광대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노름꾼과장이 등장한다는 점과 할미·영감과장에서 할미가 아닌 영감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둘은 가락오광대가 다른 지역의 가면극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가락오

광대의 이 두 과장, 즉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을 중심으로 가락오광대의 지역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가치 지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하의 가락오광대의 극적 구성과 내용에 관해서는 필자가 2016년에 직접 조사한 연희본을 바탕으로 논의함을 밝힌다.⁹⁾

3.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의 특징

1) 지역적 정체성의 적극적 반영

앞서 제시한 표와 같이 가락오광대 극적 구성이 부산·경남의 다른 가면극과 다른 점은 ‘노름꾼 과장’의 독립적 존재이다. 이 과장은 다른 어떤 가면극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가락오광대만의 특징이다.¹⁰⁾ 가락오광대는 제2과장에 노름꾼 과장이 등장함으로 다른 가면극과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 가락오광대는 ‘중 과장-노름꾼 과장-양반 과장-영노 과장-할미·영감 과장-사자무 과장’이라는 총 6과장으로 구성된다.¹¹⁾

그렇다고 노름꾼 과장이 가락오광대만의 독창적인 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하나의 과장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 가면극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점을 지적하였다.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에 대해서는 진주오광대 및 가산오광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가산오광대의 제3과

9) 이 연희본은 정규식, 『가락오광대 연구 용역 보고서』(부산시 강서구청·한국문화연구원, 2016, 113-124쪽)에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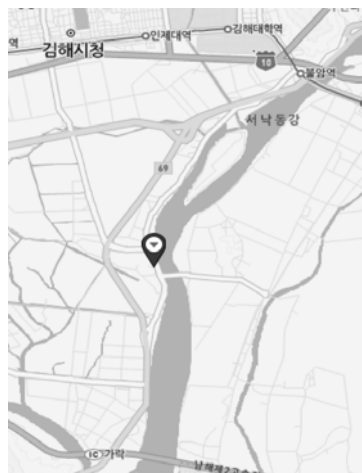
10) 가면극의 과장 명칭을 ‘노름꾼’으로 명명한 경우는 가락오광대가 유일하다.

11) 가락오광대 연희본은 최상수 선생이 채록한 대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최상수 선생은 그의 글에서 가락오광대 연희본을 1936년에 채록하여 50년대에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최상수, 『야류·오광대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984, 74쪽.) 그러면서 대본을 같은 책(172-187쪽)에 옮겨두었다.

12) 박진태, 『김해 가락오광대의 유래담과 대본 및 탈』, 김해민속예술보존회 편,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2004, 82쪽.

장, 진주오광대의 제2과장인 문둥이 과장에는 문둥이들이 모여 투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이 이 장면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야류 계통인 수영의 경우에도 양반 과정에서 수양반과 말뚝이가 재담을 펼치는 동안 모양반을 비롯한 다른 양반들이 연희 마당의 한쪽 가장자리에 모여 투전이나 제비뽑기 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인근 지역의 가면극에서 등장하는 노름 장면을 하나의 독립적인 과장을 분화시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가락오광대는 인근 지역의 다른 가면극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노름꾼 과장이 등장함으로써 독특한 극적 구성을 지닌 가면극이 되었다.

그렇다면 가락오광대는 왜 노름꾼 과장을 하나의 독립적인 과장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승되었을까? 일반적으로 가락오광대에 노름꾼 과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넓은 곡창 지대를 끼고 있는 곳이며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죽림마을의 위치〉

하지만 필자는 가락오광대의 발상지인 죽림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주목하여 몇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락오광대의 발상지인 죽림마을은 원래 죽림나루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강동교가 놓여 강동동과 가락동을 연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배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이동했던 곳이다.

죽림마을은 상류 불암나루의 불암마을, 하류 녹산나루의 녹산마을과 더불어 김해평야의 풍부한 물자들이 빈번

하게 드나드는 곳이었다. 위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죽림나루가 있던 곳은 서낙동강 하류 가운데도 강폭이 아주 좁은 곳으로 사람과 물자의 안정한 수송이라는 나루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주지하듯, 죽림나루의 상류에 있는 불암나루는 오래 전부터 국가의 세곡을 보관하는 세곡창(稅穀倉)인 불암창(佛巖倉)이 있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김해의 불암창을 비롯한 영남의 몇몇 세곡창에 있던 세곡들을 한양으로 수송하는데 낙동강 인근의 각 고을들이 수송에 들어가는 삼가세(三價稅)를 거두어서 서울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³⁾ 여기서 삼가세는 뱃값[船價]·사람값[人價]·말값[馬價]을 의미한다. 이로 미뤄볼 때, 불암나루를 비롯한 인근의 나루와 인접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세곡을 운송하는 데에 적극 참여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이 지역에서 노름이 성행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가락오광대에 노름꾼 과장이 하나의 독립적인 과장으로 성립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노름꾼 과장의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노름꾼 과장의 도입부에 노름꾼 1이 ‘가락꼬온, 마산꼬온, 부산꼬온, 다 모이서니 노름 한판 별기버자.’라고 한다. 여기서 ‘꼬온’은 ‘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락의 노름꾼, 마산의 노름꾼, 부산의 노름꾼 등을 뜻한다. 여기서 노름꾼들이 각각 가락, 마산, 부산 지역 출신인 것도 중요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죽림마을의 인근 지역인 불암마을의 불암창은 국가에 바치는 세곡을 모아 두었던 세곡창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실록에는 불암창 외, 마산창(馬山

13) 『朝鮮王朝實錄』世宗 150卷 地理志, ‘道內貢賦 各以附近 分輸于金海佛巖倉 昌原馬山倉 泗川通洋倉 沿于海 歷全羅 忠清海路 達于京 水路險惡 每致敗沒 太宗三年甲申 廢漕船 各令田夫直納于忠清道 忠州 慶源倉 其中洛東江之下流沿江各官【金海 昌原 密陽 梁山 咸安 草溪 昌寧 漆原 鎭海 宜寧】立三價之稅【謂船價 人價 馬價】募人載船【給船價 人價】泝至尙州 陸輸過聞慶 草站【給人馬價】納慶源倉 以站船達于京’

倉)과 사천의 통양창(通洋倉) 등 세 곳을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에서 영남지역 세곡창 가운데 두 곳의 노름꾼을 등장시킨 것을 보면 노름꾼 과장의 등장과 이 지역의 세곡 운송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견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양꾼 대신 부산꾼이 등장하는 것은 가락을 중심으로 마산과 부산에 비해 사천의 통양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락오광대의 극적 구성은 그것이 발생하고 전승되어 온 가락동 죽림마을이라는 지역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락오광대는 양반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라는 가면극의 일반적 특징뿐만 아니라 가락오광대가 전승되어 온 특정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가락오광대의 지역적 정체성 발현은 할미·영감 과장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가면극에서는 할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락오광대는 영감이 죽는다. 가락오광대에서 영감이 죽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영 감: “인자는 자식도 없단 말이야. 자식도 없는데 니하고 살아서 뭐하며, 또 내가 살아서 뭐하겠노, 그런데다가 작은이 하나 얻어서 사는 것까지 용심을 지기니 내가 우째 살겠노?”(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화병이 나서 기절을 한다)¹⁵⁾

인용문에 등장하듯이 가락오광대의 할미·영감 과장에서 영감은 아내가 자식을 제대로 근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첩을 얻은 것을 질투했기 때

14) 이 지역처럼 물물교역이 빈번하고 시장, 나무, 조창 등이 위치하여 외지인이 많이 모이는 것과 지역민의 정서가 노름에 관대하고 나아가 그것이 전통 연희극에 반영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유래하고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에 노름꾼 과장이 독립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15) 가락오광대 연희본(2016년 채록본), 정규식, 앞의 보고서, 120쪽.

문에 화병이 나서 죽는다. 부산·경남 지역의 가면극 가운데 영감이 죽는 경우는 가락오광대 외에도 가산오광대와 거제영등오광대가 있다. 가산오광대는 영감이 할미와 싸우다가 살림을 부수고 조상단지를 깨뜨려 동티가 나서 죽고 거제영등오광대는 첩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서 화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볼 때, 영감이 죽는 오광대 가운데 가락오광대의 영감이 가장 단순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락오광대의 할미·영감 과장에서 영감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은 이 지역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까? 선행 연구는 죽림마을의 마을공동체 신앙에 주목하였다. 죽림마을의 당산신은 오봉산신으로 여신이라 한다.¹⁶⁾ 그래서 이 지역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당산할미를 섬기며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냈는데¹⁷⁾ 영감의 죽음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했다.¹⁸⁾

이처럼 가락오광대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식 속에는 여성신이 남성신보다 더 강인하면서도 마을공동체를 잘 보살피 줄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여성신을 마을공동체 신앙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러한 의식 세계가 전통 민속가면극에 투영되어 할미·영감 과장에 등장하는 영감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필자가 현지 조사를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만 현재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들은 당산제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가야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곳으로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의 부인인 허황후(許皇后)를 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할미 대신 영감이 죽는 것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

16) 황경숙, 『죽림마을의 민속문화와 김해 가락오광대』, 『전통문화연구』 3집,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4, 81쪽.

17) 박진태, 앞의 논문, 89쪽.

18) 2016년 12월 29일 7차 현지 조사에서는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자가 제법 되었다고 했다.

19) 박진태, 앞의 논문, 89쪽.; 황경숙, 앞의 논문, 82쪽.; 정규식, 앞의 보고서, 28쪽.

였다.²⁰⁾ 이와 더불어 오광대 계통과의 영향 관계 및 다른 가면극과의 차별성을 감안한 전승 주체들의 예술적 상상력 등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할미·영감 과장에서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상여소리이다. 가락오광대의 상여소리는 이 지역의 상여소리를 바탕으로 상당히 길게 구연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락오광대의 상여소리는 원래 아주 짧았었는데 보존회 회원들의 고증을 통해 지금의 긴 상여소리가 탄생했다고 한다. 가락오광대의 저본인 최상수 선생의 채록본에 등장하는 상여소리가 너무 짧고 간단하여 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원들이 보다 적합한 상여소리를 고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적 고증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역의 어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문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현재 가락오광대 보존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문용달(46년생, 남)의 선친(先親) 장례식 때 찍은 영상 자료(1980년대 자료)까지 고증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상여소리를 고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상여소리를 완성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희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할미·영감 과장의 상여소리는 상당히 길게 구연되고 있다.²¹⁾

또한 할미와 영감이 주고받는 대사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면극에서 세(혹은 두) 아들이 죽는 곳이 일반적인 산이나 강으로 등장하는데 가락오광대는 죽림마을 부근의 지명이 정확히 등장하면서도 지역의 특징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이 : “영감! 말도 마소 큰 아는 조마이포강에 물개기 잡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둘째 아는 오봉산에 나무하로 갔다가 범한테 물려 죽었다 아이요.”²²⁾

20) 안병업(가락오광대 보존회 명예회장, 47년생, 남) 구술.(2016. 12. 29. 7차 현지 조사)

21) 정규식, 앞의 보고서, 28쪽.

22) 가락오광대 연희본(2016년 채록본), 정규식, 앞의 보고서, 120쪽.

인용문에 등장하는 ‘조마이포강’은 지금의 조만강을 뜻하는데 이 강은 죽림마을의 남쪽에 있는 둔치도 부근에서 서낙동강과 합류하는 서낙동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강이다. 이 강은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변한다고 하여 이름이 조만강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물이 빠졌을 때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로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며 또한 조석간만의 차가 심했기 때문에 자연히 인명피해도 많았을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오봉산은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죽림마을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이다. 앞서 살핀 바대로 이 산은 죽림마을의 당산신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과거 오봉산이 섬이었을 때, 물에 잠기면 산 정상의 대나무만 보인다고 하여 이 마을의 이름이 죽림(竹林)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오봉산이 이런 곳이므로 인접한 마을의 아이들이 자주 놀러 다녔던 곳임에 분명하다.

아들이 죽은 곳을 굳이 오봉산이라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관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들이 성을 쌓았던 곳이다. 그 성을 죽도왜성(竹島倭城) 혹은 가락성(駕洛城)이라고 하는데 현재 부산광역시 문화재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도 오봉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 일부가 남아 있다. 죽림마을의 역사적 배경이 이러하다면 오봉산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쟁으로 인한 아픈 기억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을 축조할 당시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높지도 않은 산에 나무하러 가서 범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상흔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지역민의 의식 세계의 반영임과 동시에 그것을 희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봉산 역시 가락오광대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할미·영감 과장에서 가락오광대가 발생해서 전승되고 있는 죽림마을의 지역적 특성들이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은 가락오광대가 시작되어 전승되고 있는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락오광대는 지역민이 살아 가는 삶의 현장과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민중들의 놀이인 전통 연희에 담아내어 극이 지니는 지역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 할 것이다.

2) 사회성과 근대성의 가치 지향

그렇다면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두 과장에 드러나는 지역적 정체성과 연관되는 두 과장의 가치 지향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은 각각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지역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가면극과 구별되는 가락오광대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가락오광대에서 노름꾼 과장이 독립적 과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지역적 정체성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극의 내용을 통한 가치 지향을 살펴겠다.

노름꾼 1 :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오늘 우리, 여계서 가락꼬온,
마산꼬온, 부산꼬온, 다 모이서니 노름 한판 벌기버자.”

일 동 : (한 자리에 둘러앉는다)

노름꾼 2 : (투전을 나눠준다)

일 동 : (투전을 분배받고 노름을 한다)

노름꾼 1 : “에이 짓지도 못했다”

노름꾼 2 : “오늘 재수 더럽기 없다.”

노름꾼 3 : “오늘 재수 좋다. 글발이 제일 좋으니, 내가 묵었제.”
('좋다! 좋다! 좋다! 기분 좋다!' 하면서 한바탕 춤을 덩실
덩실 추고는, 노름판으로 가서 노름을 계속한다.)²³⁾



〈노름꾼의 노름 장면〉

노름꾼 과장은 가락의 노름꾼, 마산의 노름꾼, 부산의 노름꾼 등 세 명의 노름꾼이 모여서 노름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노름의 성행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과장 자체만으로도 논의의 영역이 풍부하지만 극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다른 가면극들은 대부분 문둥이 과장에서 부분적인 노름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노름을 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문둥이들이다. 가면극에서 문둥이 과장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지닌 존재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한을 희극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그런 존재들의 삶의 비참함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층을 비판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름 장면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가면극에서는 장애를 지닌 존재들이 노름을 펼치는데 가락오광대는 다르다.

23) 가락오광대 연희본(2016년 채록본), 정규식, 앞의 보고서, 113-114쪽.

이처럼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름하는 행위가 주가 되는 것은 극의 중심을 인물 자체가 아닌 행위에 두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극의 마당에 비정상인이 등장하면 등장 그 자체만으로 편견과 통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 자체 보다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성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노름을 하는 행위자가 문둥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 설정했다는 것부터 다른 가면극과의 차별점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장의 가치 지향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 과장 후반부의 내용이다. 노름꾼들이 노름을 즐기고 있는 중간에 어덩이가 무시르미를 업고 나타나 노름의 판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다. 그러자 포졸이 나타나서 노름꾼들은 그냥 두고 돈을 훔친 어덩이만 잡아 가는데 그러면서 ‘남의 돈 훔쳐 가는 도적놈은 잡아간다.’라고 말한다.



〈포졸이 어덩이를 포박하는 장면〉

부산·경남의 다른 가면극 가운데도 문둥이들이 노름을 할 때 포졸과 어덩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극의 내용이 가락오광대와는

전혀 다르다. 가산과 진주오광대의 문둥이 과장에서도 다섯 문둥이들이 모여 노름을 하고 어딩이가 판돈을 훔치거나 개평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순검이 나타나 해결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락오광대와 가산오광대·진주오광대의 친연성이 뚜렷하지만 차별성도 분명하다. 가산이나 진주오광대에서는 순사나 포졸이 노름을 한 문둥이를 잡아가는²⁴⁾ 반면 가락오광대는 판돈을 훔쳐간 어딩이를 포박해서 잡아간다는 점이다. 이는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노름에는 관대하지만 도둑질은 엄하게 다룬다는 인식 세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왜 노름꾼이 아닌 어딩이를 잡아가는 것으로 되었을까? 필자는 바로 앞서 밝힌 지역적 정체성과 연관되는 사회성을 지향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락오광대의 전승 주체인 가락오광대 보존회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곡창지대로서, 역사적으로 도적의 무리들이 늘 들끓었으며 일제의 수탈²⁵⁾을 비롯하여 악덕 위정자나 탐관오리들이 민중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곳으로 그러한 민중의 역사적 경험이 노름꾼보다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라는 행위를 하는 어딩이를 징치하는 방향으로 극화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점을 참조한다면, 가락오광대에서 노름이 용인되었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노름 자체가 징치하고 처벌할만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24) 특히 가산오광대는 어딩이의 신고로 노름을 하던 문둥이들이 포졸에게 잡혀간다.

25) 현지 조사 결과, 죽림마을 인근 서낙동강 하류의 강가에 인접한 곳에는 일본식 가옥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곳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2016. 10. 19. 3차 현지 조사)

26) 문용달(가락오광대 보존회 회장, 46년생, 남) 구술.(2016. 12. 29. 7차 현지 조사)

노름은, 앞서 살핀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불법적 도박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일종의 오락이나 유흥거리로 사회적 관계 맺음의 방식인 반면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은 그것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름꾼 과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이다. 도적질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²⁷⁾이며 이러한 정서는 선창가, 장터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을 위한 위락산업이 주 소득원이 되었던 죽림마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²⁸⁾ 결국 노름꾼 과장에서 노름보다는 도적질을 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선행 연구의 언급과 더불어 이 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결부된 지역적 특징, 인물보다는 사회적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죽림마을의 인근 지역이 지니는 인문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노름을 불법적 도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용인되는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반면 남의 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반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볼 때, 이 과장은 지역성을 반영한 사회성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겠다. 그러므로 노름꾼 과장은 사회성이라는 가치 지향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름의 행위자를 장애인이나 아닌 정상인으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할미·영감 과장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가락오광대에서 이 과장의 핵심은 영감의 죽음에 있다. 대부분의 가면극에서는 남성인 영감이 아니라 여성인 할미가 죽는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가면극에서도 영감이 죽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산오광대가 대표적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 과장의 죽음 문제에 집중해서 각 가면극의 특징을 살피

27) 박진태,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2004, 297-298쪽.

28) 황경숙, 앞의 논문, 93쪽.

기도 하였다.

박진태는 할미·영감 과장의 죽음의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할미가 영감에 의해 죽거나 추방되는 것, 할미가 첩에 의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영감이 스스로 죽게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이 사회 발달의 단계에서 민중의식이 성장하여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⁹⁾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가락오광대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가면극에서 여성인 할미가 죽는데 남성인 영감이 죽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영감이 죽은 장면〉

앞서 이 과장의 지역적 정체성을 논할 때, 영감의 죽음을 당산신과 허황후 등과 연관하여 해석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지닌 여성 신격에 대한 우위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가면극에서는 구체화되지 않는, 아들들의 죽음을 자연적(조만강의 조석간만의 차이)·역사적

29) 박진태, 『한국가면극연구』, 새문사, 1985, 91-92쪽.

(죽도왜성과 연관되는 오봉산의 역사성) 환경, 즉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들을 부각시킴으로서 할미의 잘못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영감 스스로 화병으로 죽게 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여성에 대한 특별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조동일은 가면극에 등장하는 관념적 허위, 신분적 특권, 남성의 횡포는 낡은 사회의 세 가지 양상인데 탈춤을 창조한 층은 이것이 극복되어야 진정한 근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³⁰⁾이라 하였다. 그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관념적 허위란 현실과 괴리된 학문, 신분적 특권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양반이라는 신분, 그리고 남성의 횡포는 가부장적 질서 체계 속에서의 여성 억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극복되어야 근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가락오광대의 할미·영감 과장은 남성의 횡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면서 여성의 권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감의 죽음은, 가족 해체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약화되고 영감이 화병으로 죽는 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를 차단하고 여성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장의 가치 지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와 억압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며 이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통한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치 지향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름꾼 과장에서 노름을 하는 행위자가 정상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노름에 관대하고 절도에 엄하다는 것 등은 개인보다는 행위를 중시하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할미·영감 과장에서는 영감이 죽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할

30)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222쪽.

미의 책임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의 반영이라는 근대성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의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두 과장에서 확인되는 지역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마을에서 유래하여 전승되고 있는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을 중심으로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 지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논의의 결과, 죽림나루가 있던 죽림마을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가락오광대는 노름꾼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은 전승 지역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이 넓은 곡창 지대를 끼고 있다는 점, 국가에 바치는 세곡을 저장했던 세곡창이 있던 곳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 지역 사람들이 세곡 운반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통해 이곳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며 이러한 인문지리적 환경이 노름꾼 과장이 하나의 독립적 과장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간접적인 배경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할미·영감 과장의 경우, 할미가 아닌 영감이 죽는 것은 이곳의 당산신과 허황후의 존재와 연관되며,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은 역시 조만강과 오봉산이라는 인근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과장 역시 지역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은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 지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노름꾼 과장에서 노름을 하는 행위자가 비장애인으로 설정되었다는 점, 노름에 관대하고 절도에 엄하다는 점 등은 인

물보다는 행위를 중시하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할미·영감 과장에서는 영감이 죽는다는 것,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할미의 책임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함의한 근대성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락오광대는 지역적 정체성을 잘 발현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성과 근대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 지역 오광대로서 지역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 가면극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 박진태, 『한국가면극연구』, 새문사, 1985.
- _____, 「김해 가락오광대의 유래담과 대본 및 탈」, 『김해가락오광대』 김해민속예술보존회 편, 박이정, 2004, 63-103쪽.
- _____,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2004.
-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第 1號, 朝鮮民俗學會, 1933, 20-31쪽.
- 정규식, 『가락오광대 연구 용역 보고서』, 부산시 강서구청 · 한국민물연 구원, 2016.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 최상수, 『야류 · 오광대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984.
- 황경숙, 「죽림마을의 민속문화와 김해 가락오광대」, 『전통문화연구』 3 집,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4, 61-102쪽.

<Abstract>

Local identity and value orientation of Garak Ogwangdae

- Focused on the gamblers area and the halmi · yeong-gam
area-

Chung, Ku-Sik*

GarakOgwangdae is a traditional masquerade, which is derived from the Bamboo Village of Garak-dong in Gangseo-gu, Busan. GarakOgwangdae seems to have begun to be played in about 1890. In this regard, the present GarakOgwangdae is a precious cultural asset of Busan, which has been handed down in Gyeongseo-gu, Bamboo village for more than 120 years. Nevertheless, the discussions and researches on GarakOgwangdae have been quite unsatisfacto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ramatic characteristics of GarakOgwangdae in the area of gamblers and halmi · yeong-gam area, and reexamines the local cultural value of GarakOgwangdae by revealing the regional identity and value orientation of the dramatic characteristics of.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s, it was found that GarakOgwangdae, which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Bamboo Village where Bamboo Ridge was located, enriches the identity of the traditional area in the gamblers area and the halmi · yeong-gam area.

The fact that the area has a large granary zone, the area adjacent

* Dong-a University.

to the Segok warehouse where the three sacred goggles were stored for the country,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people were mobilized in the Segok transporta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ir human geographical environment could be the background where the gamblers area could be formed as an independent exaggeration.

The area of halmi · yeong-gam i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angshan and HeoHwangwu after the death of yeong-gam rather than halmi, and the death of the son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neighboring areas of Chomankang and Ohbongsan. And that this regional identity is related to the value orientation of sociality and modernity. The fact that the actors who play gambling in the domain of gamblers are set as non-disabled, the generosity to gambling, and the rigidity of the theft are interpreted as emphasizing sociality by strongly punishing anti - social acts while emphasizing ac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The fact that the inspiration dies in the halmi · yeong-gam areas and that halmi's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of the sons is weakened is that the patriarchal order system is aimed at the modernity that reflects men's despotism about women's oppression and oppression have.

In this way, GarakOgwangdae is the traditional Ogwangdae in Busan area, which is well known for its local identity but also aims for the value of sociality and modernity.

Key Words: GarakOgwangdae, gamblers area, halmi · yeong-gam area, local identity, aims for the value, sociality, modernity.

- 논문접수 : 2018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6일
- 게재 확정 : 2018년 8월 17일